



# 브룩스, 역시 에이스

KIA 에이스 브룩스가 6개월 만에 실전을 소화했다. 1루수로 변신한 터커는 세 경기 만에 홈런포를 가동했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KIA가 터커와 최원준의 홈런 포함 장단 9안타로 7점을 만들며 7-5 승리를 거뒀다. 브룩스가 지난해 9월 19일 이후 6개월 만에 마운드에 올라 실전 감각을 점검했다.

브룩스의 마지막 등판은 지난해 9월 19일 광주 한화전이었다.

이날 7이닝 무실점 호투로 4연승에 성공했던 브룩스는 가족의 교통사고로 3일 뒤 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예년보다 속도를 늦춰 시즌을 준비했던 브룩스는 이날 캠프 첫 실전에 나섰다.

첫 타자 강경학을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브룩스는 투 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우전 안타를 맞았다.

박정현을 3구삼진으로 돌려세운 브룩스는 정민규는 공 하나로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브룩스는 정진호에게 연달아 볼 4개를 던지며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2사 1·2루에서 김민하에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실점이 기록됐다.

KIA, 한화 연습경기 7-5 승 6개월만에 실전에도

151km 직구, 상대 타자 압도 2.2이닝 3피안타 2실점

터커·최원준 홈런 등 9안타 내야수 류지혁 성공 복귀

13·14일 챔피언 연습경기

이도윤의 타석에서 폭투까지 기록한 브룩스는 2루 내야안타로 1회 2실점을 했다.

2·3회에도 제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모두 삼자범퇴였다.

브룩스는 2회 선두타자 장운호에게 3개의 공을 던져 스탠딩 삼진을 잡았고, 이해창과 김지수는 2구째 승부에서 각각 중견수 플라이와 1루 땅볼로 처리했다.

볼 2개로 시작한 3회, 브룩스는 강경학을 2루 땅볼로 잡아낸 뒤 박정현을 상대로 이날 경기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냈다. 그리고 정민규에게 연달아 볼 2개를 던졌지만, 8구 승부 끝에 2루수 땅볼을 만들고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44개의 공을 던지며 2.2이닝을 소화한 브룩스는 첫 등판에서 3피안타 3탈삼진 1볼넷 2실점의 성적표를 냈다.

오랜만의 등판이라 제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첫 실전부터 151km를 찍으면서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줬다.

타석에서는 반가운 홈런 2개가 나왔다.

올 시즌 1루수로 변신한 터커가 1회 첫 타석에서 강경학을 상대로 우월 솔로포를 터트리면서 연습경기 첫 홈런을 기록했다.

1-2로 뒤진 3회초는 최원준이 우측 담장을 넘겼다. 자체 연습 경기 포함 7번째 타석에서 나온 첫 안타가 홈런이었다. 앞서 최원준은 6타석에서 안타 없이 3개의 삼진만 적립했다.

브룩스가 다시 마운드에 선 이날 부상으로 이적 후 5경기 출장에 그쳤던 내야수 류지혁도 '복귀전'을 치렀다.

류지혁은 이날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몰려난 류지혁은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땅볼을 기록했다. 1루수의 좋은 수비에 마쳐 땅볼이 그쳤지만 매서운 타구였다.

류지혁은 1회말 수비에서는 정민규의 까다로운 타구를 잘 잡아 땅볼로 처리하면서 몸 상태 '이상 무'를 보여줬다.

한편 KIA와 한화는 13·14일 챔피언스필드 장소로 바꿔 연습경기 일정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시범경기 대신 청백전

원정 시범경기, 주전급 출전 안 해...류, 오늘 경기 후 화상 인터뷰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34)의 두 번째 등판은 시범경기가 아닌 청백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는 10일 취재자에게 보낸 11일 인터뷰 일정에서 류현진이 청백전 후 화상 인터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렸다.

류현진은 6일 홈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올해 처음으로 시범경기에 등판해 2이닝 동안 1피안타(1피홈런) 1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공은 30개를 던졌다.

나흘 쉬고 던지는 일정대로라면 류현진은 11일

볼티모어와의 경기에도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류현진은 시범경기 대신 청백전에서 컨디션을 끌어 올린다.

이날 볼티모어와의 경기는 더니든에서 차로 약 1시간 이상 떨어진 볼티모어의 홈인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의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보통 각 팀 사령탑은 원정으로 열리는 시범경기에 주력 선수들을 데려가지 않고, 홈에 남아 훈련하도록 한다. 토론토는 11일 경기에 나설 투수로 선발 로스 스트리플링 등 4명을 확정했다. 토론토 마운드의 대물보인 류현진은 안방에서 청백전으로 투구 수 등을 늘려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 양현종, 주말 두번째 시험대

텍사스 감독 "13·14일 중 등판...타자들 요리 잘하면 자리 확보"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빅리거의 꿈을 키워가는 원수 투수 양현종(33)의 등판 일정이 나왔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10일 화상 인터뷰에서 "양현종이 11일 볼펜 투구를 하고, 13일 또는 14일 시범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텍사스와 스폰서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각각 연봉 조건이 다른 계약)을 하고 초청 선수로 텍사스의 스프링캠프에서 뛰는 양현종은 8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상대로 처음으로 시범경기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4-2로 앞선 8회 등판해 1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2개를 맞고 1점을 줬다.

양현종은 첫 실전 등판 후 사흘 만에 볼펜에서 공을 던지고, 다시 이를 또는 사흘 후에 실전에 임한다.

13일 홈경기 상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14일 원정 상대 팀은 밀워키 브루어스다.

우드워드 감독은 "양현종이 선발 투수로 뛰기를 바란다"며 "양현종은 우리 팀의 많은 투수와 달리 한국에서 많은 이닝을 던졌다"고 기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팀당 60경기만 치른 바람에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예년보다 훨씬 적은 이닝만 던졌다.

올해 다시 팀당 162경기 체제로 돌아간 탓에 각 구단이 투수들의 어깨와 투구 이닝을 걱정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프로야구에서 7년 연속 평균 투구 이닝 170이닝을 넘기고, 이 기간 해마다 최소 29차례 선발 등판에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킨 양현종은 텍사스의 선발 한 자리를 꿰찰 후보로



평가받는다.

우드워드 감독은 또 양현종이 개막전 26인 로스터의 한 자리를 확보하려면 "시범경기에서 빅리그 타자들을 잘 요리하면 된다"고 '간단한' 해법도 제시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빅리그에서 던지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제구를 효과적으로 하고 미리 설정한 경기 계획에 따라 잘 풀어가 수 있다면 빅리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차례 볼펜 투구와 한 번의 라이브 투구, 첫 시범경기 등판에서 투구 밸런스에 아직 만족하지 못한 양현종이 두 번째 등판에선 나아진 모습을 선사할지 시선이 쏠린다. /연합뉴스

야구 전훈지로 전남 알리는 장채근 흥익대 야구감독

## “꼰대 같지만 요즘 선수들 호랑이 정신 부족 KIA 후배들아, 잘 멩쳐 옛 영광 되찾아주렴”

흥익대 장채근 감독이 야구로 전남지역을 알리고 있다.

장채근 감독은 지난 1·2월을 순천에서 보냈다. 올해로 흥익대 사령탑을 맡은 지 11년째. 부임 후 여수·순천을 돌며 전지훈련을 지휘했던 그는 순천에서만 7번의 시즌을 준비했다.

“순천에 뼈를 묻었다”며 웃은 장채근 감독은 “서창기 전 감독과 인연이 있어서 처음에 호천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좋아서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익대가 먼저 터를 잡은 순천은 이번 겨울 ‘야구 메카’가 됐다.

특급 실내 연습장까지 갖춰진 팔마야구장을 중심으로 고려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천안북일고, 장충고, 김해고가 순천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실전 준비도 했다.

장 감독은 “전지훈련을 하면 쓰고 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우리는 37명의 선수가 왔는데 하루에 야식만 45만 원 어치를 먹더라(웃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팀마다 음식 좋고 시설도 좋다고 이야기한다. 실내 연습장은 다들 보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흥익대가 물꼬를 튼 순천은 손님을 위한 차별화 노력을 하면서 ‘야구 도시’로 발돋움했다.

야구 인프라 고민에 빠진 대학야구 감독 입장에서 이런 시설과 배려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장 감독은 “엘리트 체육 하면 예전에는 대학야구가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야구장이 없어서 시골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대학야구가 침체됐다. 또 대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스포츠 부문을 먼저 감축한다”며 “야구를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 순천에서 시즌을 준비한 팀 모두 고맙게 생각한다. 순천시, 특히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고생하셨다. 순천시야구협회에서도 야구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내에서 매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대학 강자로 자리를 굳힌 흥익대는 대학야구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다.

장 감독은 “해외 안 나가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것이다. 돈도 절약하고 선수를 관리차원에서 좋다”며 “코로나19에서



KIA 전신 해태 상징하는 포수 7시즌째 순천서 대학리그 준비 고려대 등 8개 학교 잇따라 훈련 순천시, 야구도시로 발돋움

“마음은 항상 타이거즈맨 좋은 선수 열심히 양성하겠다”

벗어나면 순천의 인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리그 전도 많이 열려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태를 상징하는 포수이자 ‘우승 감독’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 감독, 노력이 그 뒤에 있었다.

장 감독은 “처음 흥대 맡았을 때 장채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웃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라쿤에서 노무라 감독에게 야구를 배웠다”며 “요즘 학생들은 미국, 일본 야구 많이 보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 모르면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 나도 뒤지지 않게 공부하고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요즘 애’들을 상대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장 감독은 “내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야구 안 하면 뭐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 쥐고 열심히 했다. 요즘 애들은 멩 부리고, 야구도 열심히 안 하고, 놀면서 프로 가고 싶다고 한다. 도둑놈들이라고 한다(웃음)”며 “입이 아플 정도로 말을 하는데 드래프트 끝나고 3일 정도는 열심히 한다. 선수들 스스로 느끼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옛날 이야기하고, 하는 말 또 하면 늙은이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야구라는 게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반복운동이라서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야구 외적인 이야기도 마친다”며 “체격은 좋아졌는데 내실은 부족하다. 팬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대학야구는 물론 프로야구도 정신 많이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거즈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타이거즈 OB 모임의 개근생인 그는 후배들이 ‘타이거즈의 정신’을 살려 옛 영광을 되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 감독은 “마음은 항상 타이거즈에 있는데 옛날 사람이라서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웃음). 예전에는 ‘호랑이 정신’이 있었다. 아파도 참고 우애도 좋았다. 서로 믿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게 있었다”며 “야구가 개인 운동이면서도 단체 운동이다. 분위기가 타는 게 상당히 무섭다. KIA가 멩쳐서 프로야구 선두 주자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유튜브 등을 보고 꼬마들도 나를 알아본다.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이 알아본다. 나를 알아보는 팬들은 거의 KIA팬이다. 알아보고 배우게 되면 자부심을 느낀다. 야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해주는 것이어서 감사하다”며 “언제까지 야구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좋은 선수 만들고 후배들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